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4강,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성경적 가르침의 세 단계, 2부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저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4강,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세 가지 수준의 성경적 가르침, 2부입니다.

음, 고린도전서에 대한 e-성경 학습 과정 소개의 네 번째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게리 미도어스입니다. 저는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신학대학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그리스어와 신약학 교수입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진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을 공부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요 언어가 무엇이든, 우리가 논의한 기준에 맞는 성경을 세 개나 네 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성경을 다루었고,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언어로든 많은 번역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번역인지에 대한 질문을 살펴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또는 다른 언어 성경의 서문은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말해 줄 것이지만, 제가 사용한 주요 성경은 아마도 다른 언어로 국제적으로 배포되었을 것이므로, 제가 사용한 네

가지 킹 제임스, RSV, NIV 또는 New Living Translation을 가져다가 거의 모든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저는 어떻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침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수준의 가르침, 암시적인 수준의 가르침, 그리고 창조적인 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라미드 패러다임에 넣었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개념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사용하는 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페이지에 직접적, 암시적, 창조적 구성의 차트가 있는데, 이는 성경적 가르침의 세 가지 수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다시 한 번 끌어들이고,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여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의 서론에서 이 특정 구성 요소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맨 아래에는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텍스트를 작업하고 있다면 연구와 해설 등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가르침은 기독교 교회가 합리적인 합의를 구상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시킨 맥락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 특정 구절이 다루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종류의 문학을 공부한다면, 성경이 쓰여진 시점,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전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특정 시대의 관습과 관련된 문학 장르, 즉 서사시든 시든 서신이든, 그리고 좋은 문학을 살펴보면서 합의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가의 의도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원래 작가가 자신이 활동하던 시간과 공간에서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제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교육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교육이 간단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트의 왼쪽에서 우리는 직접적인 가르침인 가르침 의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텍스트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글쎄요, 우리는 계명을 읽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표면적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는 비전투원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절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간단해 보이는 명령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전쟁에서 결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간단해 보이는 것도 그런 종류의 생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영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예,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제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일까요? 그러나 믿음은 사람의 내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의미에서 더 친밀한 수준에서 관여합니다.

믿는 것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올라왔을 때, 그는 마리아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맥락에서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믿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이 헌신한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의견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질문이 있지만, 그것은 합의된 진술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진술을 하지만, 그 진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모두 성경 연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직접적인 수준이 있지만, 그 합의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와 독서의 산물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할 암시적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창의적 구성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적 구성은 성경 전체를 통한 주요 거시 귀납적 연구이며, 결국 이해의 체계를 만듭니다. 언약 신학 이해 체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경륜적 이해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체계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크게 고안하고 구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당신의 체계를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체계를 본문에 부과하고 결국 본문이 체계가 믿기로 결정한 것을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트의 맨 위에 있는 창조적 구성 수준이 높은 분류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분류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 더 비판적인 사고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종류의 수준, 직접적인 수준, 공통 분모로 보이고 비교적 명확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 텍스트가 없는 암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창조적인 구성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성경에 대한 거대한 거시적 이해입니다. 잔인한 사실에서 높은 비판적 사고의 체계까지. 이제, 내 노트의 11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단을 주목하세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신앙과 실천에 대한 궁극적인 지식의 원천이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는 성경 구절을 찾을 때, 종종 그들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본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과학, 심지어 생명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락사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텍스트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따라 트랜스젠더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텍스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우리가 증거 텍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찾습니다.

증거문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꺼낸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경 구절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누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꺼냈을 겁니다. 모든 악의 모습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아주 오래된 공식적인 번역본입니다.

모든 악의 모습을 피하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당신의 경험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업용 영화관에 가지 말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TV에 나오는 것들은 더 미밋 했고, 극장은 도덕성과 모범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절을 꺼낼 겁니다. 모든 악의 모습을 피하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 특정 장소에서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오픈 바이고, 나쁜 예이고, 그곳에는 시끄럽고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등등.

그러니 모든 악의 모습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 문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글썬요, 문제는 그 번역의 증거 문구가 본문 자체가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연관성에 의한 죄책감이 아니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관성에 의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번역의 연속선을 본다면, 여러분은 모든 종류의 악을 보고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악은 성경적으로 도덕적 문제로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구절의 맥락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페이지에서 떼어내어 사람들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이해해야만 다른 수준에서 큰 소리로 들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반복적이겠지만, 반복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학습에는 세 가지 R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자라면서 들었던 속담이자 진부한 말이었습니다. 학습의 세 가지 R은 읽기, 쓰기, 산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단어의 R에 대해 말장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학습의 세 가지 R은 읽기, 읽기, 읽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 반복,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개념적 초점으로 가져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12페이지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주어진 맥락의 저자적, 텍스트적 의도를 분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자적, 텍스트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안다고 주장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과 일대일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이 나에게 남긴 제품, 즉 텍스트, 즉 성경, 바울이 쓴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저자의 텍스트에서 텍스트적 의도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저자적 의도에 최대한 가깝게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논의했듯이, 그리고 성경 번역에서도 보았듯이, 주어진 성경 구절의 의미에 대해 기독교인들 사이에 항상 완전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는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라고 주장하지만, 다를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성경 번역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차트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인 가르침 수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자의 텍스트 의도를 분별할 때, 우리는 합의된 의견과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신학적 이해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성,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 특성을 행사할 때 그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우리에게 공부하고, 하나님께 승인받은 사람,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일꾼임을 보이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가르침은 단순한 명령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구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것만큼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도덕적 명령을 우리는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명령하셨습니다.

신이 자신의 계명을 어겼는가? 아니요. 그러면 그 계명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명령처럼 간단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최고 계명은 매우 직설적이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글썄요, 그것이 무엇을 수반할까요? 적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적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적을 위해 가장 큰 선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실제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루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가르침은 반드시 단순한 가르침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특히 여러분이 운영하는 공동체 내에서 성경 본문의 의미에 대한 합의된 의견에 도달하는 것을 보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에 단서를 하나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 우리는 다른 정교회 공동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때때로 우리와 다르게 합의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성경적 맥락에서 작은 공동체인 복음주의 공동체조차도 꽤 중요한 면에서는 거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아야 함께 모여서 우리 스스로는 달성할 수 없는 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르침. 주해와 성경 신학은 직접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석을 집어 들고 책의 의미를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적이 있나요? 그리고 계속 읽고, 계속 읽고, 계속 읽고, 계속 읽고, 이런 모든 세부 사항과 겹보기에 고립된 정보를 얻지만, 큰 그림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해설은 조각조각을 살펴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좋은 해설은 그것을 큰 그림의 틀에 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딘가에 들르면 정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소설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조금 더 도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설은 직접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설과 해당 시리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더 큰 수준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준입니다. 암시된 가르침 수준은 무리 중에서 가장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암시된 가르침 수준은 맥락에서 성경적 단어로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성경 공동체가 성경적 진술과 맥락의 확장으로 인식하는 가르침인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더 잘 이해될 테고, 다시 읽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수준, 이 암시된 가르침 수준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되려면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 사상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직접적인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 암시적인 수준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하는 성경의 증거 본문이나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하는 맥락을 찾은 다음, 그 성경적 맥락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매우 위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 불안정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영문학자이자 교사인 알리스테어 맥그래스는 이 단락의 12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계시된 신성한 활동 패턴에 대한 지속적이고 비판적인 성찰 과정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기독교 경험에서 계속됩니다. 이는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의미하는 바는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암시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진술로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본문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삼위일체적 방식으로 이해되기를 요구하는 신을 증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직접적, 암시적, 창조적 구성 수준을 이해하면 독자로서 모델을 실제로 눈앞에 두지 않고도 이러한 모델을 이해하는 학자들이 무엇을 말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줄

사이를 읽고 학자들이 글을 쓸 때 가져오는 경험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맥그래스는 이런 종류의 맥락을 여기에 가져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암묵적 가르침의 본질, 삼위일체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암묵적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명 본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의 신조적 발전,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신조적 발전,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초기 교부들의 많은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조적 발전은 함축의 범주를 증명합니다.

체계신학 분야의 핵심 개념 중 다수는 가르침의 함축된 범주를 반영합니다. 그것이 큰 그림이고 거시적 그림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과 저는 이것이 공통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의 미시적 수준을 다루고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거시적 것들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당신이 새로운 기독교인이거나, 아마도 성경을 충분히 탐구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기독교인이거나,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다소 위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부르는 해석적 복화술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성경이 직접적이고, 암시적이며, 창조적인 구성 방식으로 당신에게 가르치는 대신, 당신은 성경이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오래, 충분히 열심히 찾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경의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들은 당신이 실제로 그 성경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맥락과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우리는 가서 설교자의 말씀을 듣거나, 주중 다른 날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일어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들은 보통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이 무슨 뜻인지 말해줍니다. 성경에 대해 훈련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제가 하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누군가가 성경이 무슨 뜻인지 말해준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들을 때, 그들은 그 맥락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은 성경적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어떤 설교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그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거의 항상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밋밋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탐구해서 이 본문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지 못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엄청난 가르침의 부를 받지 못한 걸까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의 의미에 대해 거의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은 다소 작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그 맥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맥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성경 자체를 훼손했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권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일꾼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경솔한 방식, 성경의 의미에 대한 이성적인 설명보다는 감정적인 경건함으로 그

존경심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탐구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르침, 암시적인 가르침. 보시다시피, 암시적인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데, 삼위일체와 같이 결정적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있는 창조적 구성에 도달합니다. 12 페이지의 진술을 다시 주목하세요. 창조적 구성 수준은 거시적 관점을 선택하는 것의 산물이며, 이는 성경이 특정 주제를 어떻게 틀지었는지에 대한 큰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당파적 유형의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경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른 예를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구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해에서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인가요? 그것은 당신이 성경을 읽는 방식과 성경에서 읽는 내용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당신은 언약 신학자, 경륜주의자, 또는 성경 전체를 종합하는 다른 구성체입니까?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이거나 칼빈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했듯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순되지 않지만 특정 텍스트의 해석과 기독교 세계관의 거시적 이해에서 실제로 서로 갈등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범주를 모두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전천년설주의자들과 전천년설주의자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통 분모.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어느 한 쪽에서 나온 문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은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특정 책이나 주석에서 그 드럼을 두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칼빈주의자와 아르미니우스주의자와 언약주의자와 분배주의자와 사람들은 이 모든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 여러 번 정말 흥분하고 신경질적입니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의 사실 자체가 내가 당신에게 이해시키려는 패러다임을 증명합니다. 그것들은 창조적인 구성물입니다. 그 중 어느 것에도 증명 텍스트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많은 텍스트를 사용하지만, 시스템 내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분별하고 알아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런 종류의 견해를 가진 초보자들은 마치 신성한 것처럼 특정한 창조적인 구성에 헌신하기 때문에 매우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이해를 신격화합니다. 이 모든 견해는 결국 옳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 옳은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이 두 가지 경쟁 옵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것이 삶의 사실일까요? 왜 신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는 이 모든 구별과 차이점을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많을 수 있지만, 제 답은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헌법을 주었습니다. 사실, 미국 헌법에 대한 비유와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도 다른 시간과 공간, 다른 문화를 포괄하면서도 국가를 인도할 수 있는지, 물론 문제는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인도받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한다면, 나는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이러한 거시적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헌신적이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시작해서 다른 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신학 백과사전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 둘 다 패러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순간에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들어가면, 우리는 특정한 심각한 신학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폭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주의와 같은 전통 내에서도 고린도전서의 특정 본문에 대한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것들은 큰 틀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큰 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루기 위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위험과 투쟁, 그리고 다양성을 다루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통 분모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정말로 그것에 집중해야 하지만, 공통 분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우리를 다른 커뮤니티로 나눕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아가고 공통 분모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신념의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혼란에서 벗어나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이 동일한 성경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신학적 이해를 발전시키면서 직접적, 암시적, 창조적 구성 수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란이라는 아이디어 뒤의 문단에서 계속하여, 이러한 견해, 모든 다양한 견해,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의 견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성경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해석자가 전체의 감각을 부분에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큰 틀입니다. 이제, 그것은 각 견해를 특정 경로로 이끕니다.

또한 각 개인에게 특정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특정한 의지를 남겨둡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같은 텍스트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건물 전체를 이해하고 보기 시작해야지, 관점의 기초에서 일어나는 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보고 이해하세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이해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결론과 확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

이제, 여기서 기울임체로 표시된 연설을 주목하세요. 구성물, 즉 창조적 구성물은 텍스트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성찰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특정 직접적 맥락에서 증명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제, 천년왕국주의나 신학적 체계에 대한 그 반대적 견해는 모두 그들이 증명 본문을 한 줄로 가지고 있다고 매우 고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반대적 견해로 똑같이 똑똑하고 똑같이 훈련된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을 이단자라고 부르고 다른 한 사람을 이단자가 아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이 이 사람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저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주관적인 주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모든 통역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혼란스러운 걸까요? 아니요. 알다시피,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받은 성경을 주셨지만 영감받은 해석자는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이해와 신념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심지어 기독교 교회가 보여주는 다양성 속에서도, 이러한 구성물들은 이제 귀납적 과정의 산물입니다. 천년왕국주의든 아르미니우스주의나 칼빈주의와 같은 신학적 구성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귀납적 연구로, 그러한 관점을 성찰적 초점으로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논리 철학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논리학에서는 연역이 확실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귀납은 확률로 이어진다. 그것은 두 가지 영역이다: 연역적 영역과 귀납적 영역. 이 비유를 사용하여 이렇게 말해보자.

비유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연역적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에서 진실을 도출하고 그 성경에서 이해와 맥락의 의미를 도출하는 귀납적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통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을 연구하는 인간으로서 귀납적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것이 정확하고 우리의 연구, 믿음, 순종에 합당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귀납적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는 확률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이런 이유로 다른 관점보다 아마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신념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률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죽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것에 참여해야 하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며, 마치 마리아의 태중에 신성한 씨앗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작용으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금 신인입니다.

마치 그가 결코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신이요 . 마치 그가 결코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혼동하거나 합쳐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는 신인입니다 .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몇 가지 다른 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하는 몇 가지 것들이 실제로는 암시적이고 창조적인 구성 신학입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명 텍스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으로 옮겨온 암시적 텍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납적으로, 확률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확률을 시험할 오랜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특정한 믿음에 매우 확고하게 의지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헌신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신념 체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마치 그것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념 체계가 없습니다.

중요하고 진지한 것은 증명 텍스트가 없지만, 암시적인 가르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시는 중요합니다. 심지어 창의적인 구성물도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할 만큼 매우, 매우 잘 준비된 교부들로서,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글썄요, 그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박해에서 나왔습니다. 글썄요, 그들은 제가 매일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했고, 저는 대학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것에 전념합니다. 이 페이지 맨 아래에 말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산물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역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형식 논리에서 연역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납은 확률의 정도로 이어진다. 13페이지 상단. 결과적으로, 아무리 엄격하게 주장하고 우리가 창조적인 구성 체계에 대해 아무리 확신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확률적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을 뿐이다.

이제,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삼위일체를 위해 죽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결합과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들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에게 더 이상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자는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를 믿는 데 전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걸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면 저는 영의 확신과 같은 더 많은 신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독교인인 것에 대한, 또는 어떤 견해인 것에 대한 매우 깊은 수준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관점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점에는 이런 협상 불가 사항이 있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관점이 아닙니다. 저는 세계관, 세계 종교 등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저는 2017년 6월과 7월에 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테러리즘이라고 부르는 깊은 차원을 다루는 세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테러리즘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테러리즘의 깊은 고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그런 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순간을 겪었고 미래에 더 큰 순간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관이 테러리스트를 움직입니다. 왜 사람이 불 베어링과 폭발물이 든 조끼를 입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걸까요? 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종교적 원칙에 헌신하는 한, 그것이 옳든 그르든, 심지어 그 자체 공동체에 따르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런 종류의 동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우리가 그 사상에 매우 강렬하게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헌신하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개종 문제로 가서 우리의 개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책으로서 우리가 회심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돕는 데 전념합니다. 그것이 그 서신의 전부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져와서 창조적인 구성 수준조차도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확률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창조적인 구성 체계에 대해 아무리 엄격하게 주장하고 확신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확률의 영역에 있을 뿐 확실성은 없습니다. 격렬한 신학적 논쟁은 본문에 대한 상충되는 견해와 구성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교회 내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기독교 교회의 더 작은 부분 내부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는 거의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정의하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복음주의 신학 협회가 성경과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 그 학술 협회 내에서는 그것이 바로 그 정의입니다.

격렬한 신학적 토론이 있지만, 지구상의 기독교 교회에서 작은 그룹 내부에서, 복음주의라고 널리 불리는 이 것은 성경에 대한 높은 존중심과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정통성보다 더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중된 커뮤니티에는 매우 심각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썄요,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한 이해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심지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특정한 것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같은 우산 아래 있고 우리와 같은 공통 핵심 신념을 많이 고수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의견이 달라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도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는 다양성 속의 연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주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주요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좋아요, 마지막 문단은 페이지에 있고, 13페이지의 맨 위 문단은 아닙니다. 창의적인 구성은 종종 큰 패러다임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창의적인 구성도 많고, 나쁜 창의적인 구성도 많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악의 형상을 멀리하라는 것과 그 구절이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특정한 이해로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는 한, 당신은 평생 조종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곳곳에서 조종하고, 성경을 사용하여 그렇게 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이 서론 강의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만 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텍스트가

연관에 의한 죄책감과 같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텍스트에 강요된 오래된 번역에서 단어를 표면적으로 읽은 나쁜 창조적 구성입니다. 이 텍스트를 연구하면, 모든 형태나 종류의 악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악의 모습보다 정의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이 텍스트에 연관시켜 죄책감을 강요하는 것은 직접적이거나 암시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이해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나쁜 상상력이며, 그것은 수천 가지 예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에 자신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삼각형의 바닥에서 직접 암시된 창조적 구성 위로 이동하면서, 간단한 직접 독해에서 더 정교한 신학적 구조로 이동합니다. 신학적 구조가 더 정교해질수록, 그것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다음 문단에서, 모든 과목은 바로 여기 노트에 별표를 찍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과목, 또는 실례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과목이나 텍스트는 이 세 가지 수준의 가르침에 대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한 번 더 읽어 봅시다.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과목이나 텍스트는 이 세 가지 수준의 가르침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 대한 주장된 성경 텍스트는 피라미드의 어디에 있습니까? 직접적인 것입니까? 암시적인 것입니까? 창의적인 구성물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머릿속에서 바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경 책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문헌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조사함으로써 그것에 답하고, 거기에는 풍부한 정보가 있습니다. 확신과 신념의 겸손도 적절한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이고 그 방향에 대한 권리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의미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모든 의미 때문에 죽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몇몇은 창조적인 구성물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저는 밀레니얼리즘 때문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르미니우스파와 칼빈주의 문제로 죽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런 견해에 대한 나의 신념과 이유가 있지만, 그것들은 죽음에 대한 견해가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우산 아래의 것들이지만,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특정한 것들이 있다.

공동체를 위해 타협하려는 의지는 규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구성물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까? 글썬요, 저는 창의적인 구성물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분열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때때로, 그룹으로서, 왜 서로 다른지 이해하는 데 합의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분열하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만큼 쉽게 공존할 수 없고, 신학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물들은 각각 특정 방향으로 이끌 것이지만,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신문에서 본 것처럼 집사들이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썬요, 그것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공동체를 위해 타협하려는 의지도 이 규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협은 조작이 아니라 이해에서 온다. 들었지? 타협은 조작이 아니라 이해와 의견 불일치에 동의하려는 의지에서 온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위해 죽을 수 있지만, 어떤 종말론적 입장을 위해 죽을 수는 없다.

누군가가 자신의 구성물에 불과한 견해를 주장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견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모토는 또한 텍스트에 대한 당신의 다양한 견해에 대한 토론을 위한 기준선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이해를 신격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우리 문화에서 파생된 개인주의에 취해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와 함께 자기 인증 권위의 가정이 옵니다. 그러나 신학은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피라미드를 올라가면서 우리는 고대 배경에서 쓰여진 고대 텍스트를 현대의 질문과 연관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협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훑어보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단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 제도가 신의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관행일까요? 대부분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고, 저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암시적인 가르침입니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 수준입니다. 게다가 특정 현대적 이슈와 관련하여 성경의 침묵으로 인한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문화가 구식 관습을 넘어설 때 성경이 역사의 진행에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가 해석학에 대한 주요 도전입니다. 저는 실제로 Zondervan과 함께 Four Views on Moving from the Bible to Theology라는 책을 편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Zondervan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Lagos System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Lagos System에서 다른 출판물도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넣으세요. 하지만 항상 중간 이니셜인 Gary T. 를 넣으세요. 그러면 제 글이 나올 겁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이 토론 외에도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대적 환경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떻게 하면 의미에서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 글썄요, 이걸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서론 자료의 일부가 아닙니다. 맥락화는 이 질문의 연구에서 알려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맥락을 취하고, 당신의 맥락에 도달하고, 합법적인 연결을 만드나요? 연결을 가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합법적인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성경의 의미를 위반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에서 수단으로 이동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좋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헌을 제시하는 수많은 본문을 접하게 될 것이고, 이 서론 자료에서 이야기해 온 많은 것들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 세 가지 수준의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검증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긴 세그먼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의가 될 그 강의를 끝나면 바로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서론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역사, 문화, 본문 등에 대한 공식적인 서론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런 다음 그 본문들을 풀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서론이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게리 미더스 박사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4강,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 수준의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방법, 2부입니다.